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g.daejangbu.com/>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방어(防禦)

[해설] 정답 ①

반의어(反意語):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함.

- 반의어 종류 -

- ① 상보 반의어: A의 부정이 B가 되고, B의 부정이 A가 되는 반의어.
예) 남자-여자, 살다-죽다, 있다-없다, 참-거짓, 합격-불합격
- ② 정도 반의어: 단어 사이에 정도에 있어서 대립되는 반의어.
예) 길다-짧다, 춥다-덥다, 쉽다-어렵다
- ③ 방향 반의어: A의 부정이 반드시 B가 되지 않고,
B의 부정이 반드시 A가 되지 않는 반의어
예) 위-아래, 앞-뒤, 왼쪽-오른쪽, 가다-오다, 입다-벗다,
부모-자식, 남편-아내, 스승-제자

주어진 보기 지문은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선지 ①번이다. ①은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

② ③ ④는 모두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이다.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하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해설] 정답 ②

사회자의 역할로는 토의의 계획과 준비, 토의의 실제적 진행방향과 유의점 안내, 토의 내용의 정리와 보고 등이 있다. 또한, 사회자는 토의를 시작하고 진행하며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토의의 전 과정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규칙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대하며 민주적이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파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해설] 정답 ①

해당 지문은 “인류를 향한 은밀한 역습 ‘햄버거 커넥션’ ”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일부분이다. 주어진 지문의 전개방식은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말, 1987년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이 파괴된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해설] 정답 ④

해당 문제는 사이시옷과 관련된 문제.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고 ‘인사말’로 적어야 함. 표기와 발음이 똑같음.

또 다른 예) 머리말[머리말], 소개말[소개말], 반대말[반대말]

주의) 노랫말, 혼잣말, 존댓말

순댓국(0), 하룻길(0) 등룻길(0)

문 5. (가)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반영론은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여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취한 비평적 입장이다.

(나)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 ①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한 정형적 형식을 통해 정제된 시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났군.
- ②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것은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군.
- ③ 낭만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적 분위기가 시조에서 보이는 선경후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
- ④ 해질 무렵 강가를 거닐며 조망한 풍경의 이미지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자아내는군.

[해설] 정답 ②

문학 감상의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반영론, 표현론, 효용론)이 있다. 지문 (가)는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에 나타난 현실과 시대 상황에 초점을 맞춘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반영론 ②번.

① ③ ④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 내재적 관점.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 ② 반가운 벗과의 독어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③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④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해설] 정답 ①

해당 지문은 “책은 먼 곳에서 찾아 온 벗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린 기고문이다. 지문에 있는 삼독(三讀)은 세 번 읽는다는 뜻이다. 지문에서 삼독은 1. 글과 필자를 읽고 2. 작가의 시대, 사회를 바탕으로 읽고 3. 자신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해설] 정답 ②

‘옛’은 관형사로 체언인 ‘책’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므로 띄어쓰기 (0)
① ‘그중’은 ‘범위가 정해진 여럿 가운데’라는 뜻으로 한 단어 명사로 붙여 쓰기.

③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 또는 붙여 쓰기도 함. ‘번’이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쓰기.

그러나 ‘한 번, 두 번’으로 바꾸어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한번’으로 붙여 쓰기. 예를 들어 “한번 잊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는 ‘두 번’으로 바꾸면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한번’처럼 붙여 쓰기.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 ‘기회 있는 어떤 때’의 뜻으로 사용되면, ‘한번’으로 붙여 씀. ④ ‘굴속’도 한 단어로 붙여 쓰기.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가을일[가을릴] | ㉡ 텃마당[텃마당] |
| ㉢ 입학생[이팍쌩] | ㉣ 흙먼지[흙먼지] |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해설] 정답 ③

㉢입학생:]ㅂ ㅎ ㅊ ㄱㅅㅈ ㅇ = 8개

ㅈ이팍쌩:]ㅈㅊ ㄱㅅㅈ ㅇ = 7개(-1)

음운축약이 일어나 개수가 변동 전보다 하나 줄어들었다. 축약과 된소리되기(경음화)가 일어난다. ‘ㅅ’은 된소리로 하나의 음운으로 센다.

[오답 정리]

- ① 가을일 -> 가을닐(ㄴ첨가) -> 가을릴 (유음화). 두 가지 음운 변동
- ②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을 위치 동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을 방법 동화(비음화, 유음화)라고 말한다. 조음 위치가 같아진다는 것은 원래 조음 위치가 다르던 것들이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이거나 조음 방법이 다르던 것들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리라라는 것을 말한다. 텃마당에서 ‘ㅅ’과 발음 [텃마당]의 ‘ㄴ’은 모두 자음 체계표에서 발음 위치가 ‘잇몸 소리(치조음)’로 조음 위치가 같다. 따라서 조음 위치가 다르던 것들이 조음 위치가 같아진 경우가 아니다.
텃마당 -> 텃마당(음절 끝소리 규칙) -> 텃마당 (비음화)
- ④ 흙먼지 -> 흑먼지(자음군 단순화) -> 흙먼지 (비음화)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②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③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④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해설] 정답 ①

‘먼저 접수된’이 과거형이어서 ‘-었-’을 그대로 사용하여 고치지 않은 것이 알맞다.

문 10.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알피 잇니
녀던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 (나) 술은 어이호야 도호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호야 도호니 염매(鹽梅) 톨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뜯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호리라
- (다) 우레궤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궤치 번뜻 만나
비궤치 오락가락 구름궤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롭궤튼 혼숨이 안기 피듯 호여라
- (라) 하하 허허 혼들 내 우음이 정 우웁가
하 어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님넌 웃디들 말구려 아귀 띄여디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궤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대조법이 아니라 대구법 활용.

[작품 해설]

(가)는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1565) 제9곡 내용이다.
제9곡 핵심 요약: 고인(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겠다.
제9곡 특징: 연쇄법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냄.
(제9곡 현대어 풀이)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 분들을 보지 못하네.
하지만 그 분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겠는가?

(나)는 윤선도의 ‘과연곡’.

(현대어 풀이)

술은 어이하여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여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나라를 다스림에 만수무강하리라.

여기서 ‘좋은 술과 국’이 태평성대를 가리키고, ‘누룩’과 ‘염매(소금)’는 임금과 신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술과 국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맞는 재료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면 만수무강할 것이라는 것을 대구법을 통해 노래하고 있다.

(다)는 작자 미상의 시조.

(현대어 풀이)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 주제: 이별의 슬픔

- 특징: ① 직유법(-같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
② 자연현상(천둥, 번개, 비, 구름)을 통해서 만남에서 이별까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③ 애상적 어조 (슬픔)

(라)는 권섭의 시조.

(현대어 풀이)

하하 허허 하고 웃는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세상일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느끼다가 그렇게 웃는 것이네
벗님네들이여, 웃지를 말구려, 입아귀 찢어지리라.

이 시조는 조선 후기 당시의 정치 현실에 대한 환멸감과 비관적 시각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의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것이라고 한 후, 이런 부정적 세태 속에서 웃고 있는 자들은 아귀가 찢어질 것이라 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비관적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의성어, 설의법과 과장법을 활용.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해설] 정답 ③

선지 3번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문은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가 알맞다.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라는 뜻이다.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게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게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게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해설] 정답 ①

진행자는 상대방인 홍 교수의 의견을 비판하지는 않는다.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②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③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④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해설] 정답 ④

해당 지문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일부분이며 진보와 진화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부터 제거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본문에 진보와 진화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 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이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랴?”

사씨 대 왈,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비에게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봉우(朋友) 서로 책(責)하니 어찌 부 부라고 간쟁(諍諍)치 않으리이까? 그러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 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흡족해 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유 소사(유 한림의 부친)의 말에 사씨는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리이까?”라고 대답했고 부부간에도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의 말에만 치우치면 해로움이 있고 유익이 없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현명하게 말한다.

[작품 해설]

-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권선징악(勸善懲惡)
-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 특징: 조선 임금인 숙종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 소설임
- 의의: ‘사씨남정기’는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났다’라는 뜻으로 중국 명나라 배경. 양반 사대부인 유 한림의 가정에서 벌어진 처첩 간의 갈등을 그려 비판한 가정 소설로,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제시한 작품이다.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후처(교씨, 장희빈)의 모략으로 고생하던 본처(사씨, 인현 왕후)가 고생 끝에 남편의 사랑을 되찾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정실 부인 사씨를 고매한 부덕(婦德)의 소유자로, 교씨(첩)를 간교한 여인으로 설정. 대립적 인물 설정은 주인공 사씨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현 왕후를 옹호하다 귀양을 가게 된 김만중이 인현 왕후 폐위의 부당성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씨 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작가의 가치관이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체로 조용하고 썰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장간에서 별경계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쑺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가 바깥의 선들대는 늙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해설] 정답 ④

이 작품에서 ‘소리의 여운’은 갈등 해소의 기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쇠붙이 소리를 배경음으로 하여 분단의 비극이 한 가정에 가져다 준 정신적 고통을 보여준다. 쇠붙이 소리는 집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 결국 집안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영희는 자신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소리는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이며, 인간 정신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암시적 요소로 봐야 한다.

[작품 해설]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배경: 5월의 어느 날 저녁의 한 실랑민 가정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구성: 어느 하루 저녁부터 자정까지의 한정된 시간으로 짜여져 있음

표현: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를 지님

의의: 실랑민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됨을 그려 냄

주제: 전후(戰後)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가족의 권태와 비극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뿌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에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②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③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④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해당 지문은 시인 안도현의 ‘일 포스티노 - 사람’이라는 산문집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시인 안도현 씨가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보고 느낀 감상문이라고 하면 되겠다.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이 영화의 등장 인물들이 아니라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작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문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② 韋編三絶
 ③ 天衣無縫
 ④ 莫無可奈

[해설] 정답 ③

지문의 빈 칸 앞에 있는 한자성어는 ‘일필휘지(一筆揮之)’다. 일필휘지는 붓을 한번 휘둘러 줄기차게 써내려가는 것으로 글씨를 대단히 힘 있고 잘 쓰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김삿갓은 일필휘지의 능력이 있어서 김삿갓의 시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③ 천의무봉(天衣無縫).

천의무봉: ① 성격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

② 시나 문장이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어 자연스러움

① 화조월석: 「꽃이 핀 아침과 달 밝은 저녁」이란 뜻으로,

1. 「경치(景致)가 가장 좋은 때」

2. 음력(陰曆) 2월 보름과 8월 보름 밤. 봄과 가을

② 위편삼절: 책을 엮은 것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 다독.

④ 막무가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해설] 정답 ①

‘유명세(有名勢)’는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거의 강제적으로 치르는 돈을 일컫는 말. 또는 유명하기 때문에 치르는 애매한 곤욕을 이르기에도 함.

참고) 대증요법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치치를 하는 치료법.

예) 체온이 높을 때에 몸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것.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 ②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④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해설] 정답 ④

지문의 마지막 3줄을 보면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 4번의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추론이다.

군무원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g.daejangbu.com/>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해설] 정답 ③

해당 지문은 “충(忠)과 효(孝)는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선지 3번이 글쓴이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